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⑱ 정각원 불단(상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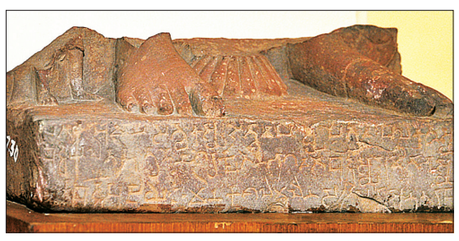
합리와 초월, 인간과 신성 품은 붓다

불교를 말할 때 흔히 떠올리는 첫 이미지는 '이성'과 '합리'다. 필자 또한 일반대학이나 불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에게 불교를 설명할 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합리적 사유 위에서만 성립하는 종교이며 지혜와 깨달음, 논리적 탐구로 이뤄졌다고 말할 때가 있다. 이성과 합리에 기초한 근현대 서구사회에서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유 자체가 여기 있다. 불교는 신의 구원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완성을 믿는 종교라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신을 부정하고 형이상학적 상상을 배제하며 오직 논리와 수행으로만 성립하는 종교라는 설명은, 서구에는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매력적인 홍보 문구처럼 작동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불교의 한 단면만을 비추는 것이다. 불교의 역사와 실제 신앙 전개를 살펴보면, 합리성의 외피로만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요소들이 더 깊은 층위에서 작동해 왔다. 오히려 불교의 얼굴은 합리의 반대편에 가까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정각원에 모셔진 아미타불 신앙이다. 무한한 빛과 무한한 수명, 그리고 서방 십만억 국토를 지나 존재한다는 극락세계까지. 지난번 산책에서 살펴본 이러한 요소들은 이성적 불교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철저히 경험과 논리의 범위 안에서만 불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른바 '합리적 불교'의 틀을 어긋나게 만드는 부처님이신 것이다. 이런 부처님을 주존으로 모신 곳이 이성과 합리의 전당인 상아탑, 동국대학교이다. 이 괴리감만으로도 '파격미'라 할 수 있겠다.

근현대의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학 속에서도 아미타불은 거의 대부분 '방편'으로 간주된다. 즉, 석가모니의 진짜 가르침은 따로 있고, 아미타불은 민중을 위해 마련된 단순한 장치일 뿐이라는 식이다. 이런 태도는 불교 내부의 다양한 전개를 하나의 '이성적 원형'으로 환원하려는 습성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화하는 순간, 불교의 실제 역사와 신앙의 힘은 놓쳐 버리게 된다.

다시 현대로 돌아와 보면, 전통적인 교학뿐만 아니라 불교학에서도 아미타불을 비불교적인 사례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읽힌다. 아미타불이 불교 전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불교 밖의 신앙에서 기원했다는 담론이 바로 아미타불 외부기원설이다. 아미타불과 극락세계 사상이 불교 내부의 순수한 전개가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나 브라만교, 혹은 중앙아시아 종교적 상상에서 빌려 온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가장 오래된 아미타불상인 후베슈카 26년 아미타불상의 일부. 현대 학자들은 이 아미타불상이 석가모니불과 중첩된 형태로 믿어졌으리라고 추정한다.
사진 출처=위키피디아 영문판

전통 교학 속 아미타불 '방편'으로 간주
불교학도 아미타불 비불교적 사례 치부
부처님 삼계 주인임은 이해 아닌 믿음

학문적 검증과는 별개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바탕에는 불교를 이성적 종교로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즉, 붓다의 본래 가르침은 합리적이었고, 그 본래성에 맞지 않는 요소들은 외부에서 흘러들어 온 불순물이라는 서사가 깔려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얼핏 균형 잡혀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교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어찌 보면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는 바로 그 반이성적 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사 속 붓다 자체가 이미 초월적 속성을 지닌 분이셨다. 부처님께선 인도 북동부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순간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며 신들 위에 선 신임을 천명하셨다. 중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인간의 존귀함에 대한 최초의 일성이라 배우고 이 같은 해석이 상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필자는 유아(唯我)라는 단어를 '오로지 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서 '나'란 반드시 붓다가 될 마지막 삶을 시작한 고타마 싯다르타 개인을 가리키며, 오직 그 본인만이 지존이라는 뜻이다. 이는 〈법화경〉 여래수량품의 게송과 바로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지금 이 삼계는 / 나의 것이요 / 그 안의 중생은 / 모두 나의 자식이라.
지금 이곳은 / 여러 괴로움이 많으니 / '오로지 나'만이 / 능히 구원할수 있으리라.

오로지 부처님만이 하늘 위·아래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이분만이 중생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 중의 하늘, 신 중의 신'이란 붓다에 대한 칭호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처음부터 부처님께선 인간적 스승을 넘어, 우주의 중심이자 신들의 권위를 능가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불교 본래 모습이 철저히 합리적이라는 전제는 역사 자체와 모순된다. 이미 초기부터 붓다는 합리와 초월, 인간과 신성을 동시에 품은 존재였다.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아미타불 신앙을 석가모니의 여러 속성을 종합한 총체적 상징으로 읽는다. 우리가 지난 산책에서 알아본 법장비구의 보살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이나 인연담을 각색한 것이며 아미타불의 무량한 빛은 본래 32상 80종호를 갖추고 백호광명을 놓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일 뿐이다. 또 무량한 수명 또한 석가모니불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음에도 사리로서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당시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아미타불은 외부 종교의 흔적이 아니라, 절대자인 부처님께서 지닌 다양한 얼굴을 모순 없이 엮어 낸 결과물이다. 이것이 불교다. 절대자로서 붓다를 믿는 종교인 것이다.

보통은 불교사상의 포용성과 복합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이성과 합리라는 큰 틀 안에서 수사적으로 '신 중의 신'으로서 부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무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불교의 복합적 전개와 사상적 포용성 자체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필자는 불교를 연구·강의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오로지 구원은 붓다라는 절대자의 말씀으로써 주어진 바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부처님께서 삼계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필자가 이 믿음을 얻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는 해석의 과정도 이해의 과정도 아니었다. 그저 이것을 믿겠다고 선택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선택 이후 종교인으로서 할 일은 말씀의 전파와 실천뿐이다. 마치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이 매를 맞아도 그대들 모두가 깨달을 것이라 소리를 지르듯, 약왕보살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자석신명(不自惜身命, 자신의 몸과 목숨을 버림) 하듯이 말이다. 아미타불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방편이라는 주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서방의 정토를 향해 자신의 몸과 목숨을 다해 아미타불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

〈동국대 박사〉

지장보살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는 원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㊱ 지옥 중생 구제 서원과 십악륜의 과보

금일의 내용은 제4권 제3장, 의지함이 없는 행(무의행품無依行品) 2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장보살님이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발원과 함께 열 가지 악륜(惡輪)을 설한 뒤, 37·38호부터는 재미있는 설화 형식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 타무간지옥자 발제의 원(地藏菩薩의 墮無間地獄者 拔濟의 願)

그때 지장보살마하살은 다시 부처님께 사뢰었습니다.

"세존이시어, 많은 불국토가 있사옵니다. 그런데 오탁악세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장래 많은 국토의 중생들은 번뇌가 치성하여 온갖 악행을 익혀 어리석고 사나워 교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찰제리(귀족), 재관, 거사, 장자, 사문, 바라문 등은 선근이 적어 신심 없고, 아첨과 간사와 어리석으면서 총명하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후세에 받을 괴로운 과보는 돌아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선지식을 버리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재리(財利)를 위하기 때문에 파계한 악행비구와 비법(非法)의 당파를 만드는데, 이는 반드시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곳이 있으면, 나는 마땅히 그곳에 가서 일체중생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법왕(法王)이신 부처님의 위없는 미묘한 감로법미와 방편으로 교화하게 하고 그와 같은 찰제리와 포악한 바라문으로 하여금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열 가지 악륜(십악륜十惡輪)

십악륜은 북량본(北涼本)과 같이, 십악륜을 말하나, 살(殺) 내지 사견(邪見) 등 십불선(十不善)이나 십악업(十惡業)을 가리킨 내용은 아닙니다.

"선남자야, 열 가지의 악륜(惡輪)이 있다.

미래 세상의 부처님 국토에 있는 포악한 찰제리, 재관, 거사, 장자 등은 이 열 가지 악륜 중에서 그 하나를 성취하거나, 혹은 전부를 성취함으로써 먼저 닦아 모은 일체의 선근이 다 무너지고 소멸하여 재가 되니, 오래지 않아 그 몸을 못 쓰게 되며, 오랫동안 그 혀가 묶여 말을 못하며,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결단코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①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그 계율을 깨뜨린 악행비구는 나쁜 견해를 가지고 찰제리와 재관들에게 아란야의 청정한 비구들을 비방하여 말한다. '어진 이들이여, 저런 비구들은 어리석은 범부로, 거짓 이상(異相)을 나타내 세간을 미혹시키며,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번뇌도 끊지 못하면서 덕이 있는 체하는 것이다.'

…그때 삼보를 믿고 공경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 용, 야차, 신 등은 포악한 찰제리 등에게 분노를 느껴 이같이 말한다. '여러분 보라, 저들은 일체의 법안과 삼보의 종성을 경멸하고 헐뜯으며 모든 선근을 없애고 훼손시킨다. 저들이 사는 국토와 도시를 옹호해 주지 말자.'

…그리하여 신들이 보호하지 않자,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갖은 병과 굶주림이 일어난다.…저 포악한 왕의 무리들은 오래지 않아, 몸을 못 쓰게 되며 참기 어려운 지독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②또 선남자야, 저 포악한 이들은 나쁜 벗의 행동을 따라 행하고 선근이 적어…성문승과 연각승을 헐뜯고 비방하여 중생이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는 것 등으로부터 한 게송조차도 듣지 않느니라. 이런 삶을 부처님의 정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자라 하며, 팔성도를 무너뜨리고 무량한 중생들의 법안을 빼어 뭉개는 자라 하느니라.…이들 또한 오래지 않아 사지가 무너져 몸을 못 쓰게 되며. 목숨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③또 선남자야, 포악한 왕, 재관 등은 계율을 깨뜨린 악비구의 행동을 따르므로, 그 나라에 있는 진실한 복밭은 이들을 버릴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지 않는다. 그 나라에 살더라도 법을 의지하여 살며 언제나 속인들 사이에 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시주의 집에 자주 가지 않으며, 설사 잠시라도 말을 늘 조심한다.

…또 속인들 앞에서는 파계한 이를 비방하지 않으며, 그 비행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복밭을 가까이 하면서 계율을 깨뜨리는 일을 멀리한다.…그럼에도 저 악행비구들은 성을 내고 원한을 품어 헐뜯고 능욕한다. 만약 여러 중생이 무간죄를 범하고, 혹 무간죄에 가까운 성죄와 차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저 왕 등이 계율을 깨뜨리고 법을 벗어나 중죄를 짓는 것보다 가벼우리라."

〈송림사 주지〉

법당서 간단 견본과
기존 법당 시설과 스님 자신이 양손 마이크로 성능 비교 테스트시 놀라운 성능 차이를 확인 후 모든 시설상담 소리비교 비용 한잔!
최신디지털앰프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 귀 법당 기존시설가의 1/3 가격차 확인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별도 : 야외방생용 판매)
충전식 / 출력 3kw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가능
야외사용 겸용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아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